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BETTER PEOPLE BETTER WORLD

## 30년 교육기업 일궈온 연구하는 교육자

머릿글 육본 정책홍보실장 임관빈

6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국무총리 한덕수

15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기념포럼

KHDI 院歌

회원추천캠페인

커버스토리 재능그룹 회장 박성훈

인재경영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세상을 보는 눈 이화여대 교수 허태근

회원 & 연구원소식

섬머포럼

정보비타민

Health Info 웃는내일치과 원장 최정호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발행인 편지

조순칼럼

표지인물 박성훈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 6

2007 June

등록 제76호 [매월]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7년 6월 11일 발행인 : 정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 3500(선) F.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탐정 이계경 인쇄 : (주)동명인쇄 T.462 6323

# S라인콘덴싱 새기술이 소리없이 가스비를 잡았다!

## 좋은 가스보일러 5가지 선택 기준

- Save 절약!**  
열손실 틈 없어야 돈손실 틈 없다! 
- Sound 조용함!**  
조용한 보일러가 열효율이 높다! 
- Safety 안전!**  
유럽안전규격 CE인증 획득 
- Speed 속도!**  
빠른 난방과 온수 출탕 속도 (1°C씩 온수 온도제어 가능) 
- Service 서비스!**  
A/S 우수기업 인증 

가스비  
최고  
**35%**  
절감



### S라인 콘덴싱이란!

대성셀틱 S라인 콘덴싱 설계는 연소가스 배출이 원활한 상향식 연소와, 내구성을 높인 Two Room방식으로 연소음, 내구성 및 높은 열효율의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거꾸로 타는 하향식 연소방식은 연소 가스 배출이 어려워 연소음이 클 수도 있으며, 효율저하와 내구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육군은 변화하고 있는가?

임관빈 육군본부 정책홍보실 실장



**육**군은 변화하고 있는가? 그렇다. 그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군은 54만의 병력규모에서 3분에 1에 이르는 17만여명을 감축하는 창군 이래 최대의 육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이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은 육군개혁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육군의 개혁노력은 급변하는 21세기 안보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육군의 임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이다.

최근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정보·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거리·정밀성·파괴력이 향상된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실시간 정보·지휘통제 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장공간 확대, 장거리 정밀타격전, 네트워크 중심전 등 새로운 전쟁양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육군은 그동안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병력위주의 재래식 군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병력위주의 군 구조는 경상비 소요를 증가시켜 전력투자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육군은 대규모 병력감축을 추진하되 간부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로 늘려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과 지휘통제체계(C4I)를 기반으로 정보감시능력·기동력·화력을 향상시키는 전력구조 첨단화를 통해 전반적인 육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양적개념에 질적개념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안보환경에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육군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군은 군 구조개편이라는 하드웨어적 변화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군 구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안보환경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전력구조에 맞는 운용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육군 장병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선진화시키는 미래지향적 육군문화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육군문화혁신은 소프트웨어 증진의 핵심으로써 국민들의 군에 대

한 다양한 변화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육군 스스로가 국민과 육군장병 모두로부터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고, 자율과 참여, 효율과 창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육군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육군은 올해로 창군 59주년을 맞이한다. 육군은 창군 이래로 북한의 6.25 남침과 끊임없는 무력도발로부터 조국을 굳건히 지켜 왔다. 또한 월남에서 동티모르에서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익을 위하여 피땀을 흘렸다. 이 과정에서 육군 장병 16만여명이 고귀한 생명을 국가에 바쳤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양상에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국가방위의 궁극적 요소인 영토를 수호하고 유사시 결정적인 전투로 전쟁을 종결하며, 전쟁이후 안정화 작전으로 국가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주는 육군의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또한 평시에도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국가적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 국익증진 등의 활동은 우리 육군이 책임져야 할 국가적 사명이다.

우리 육군은 이처럼 숭고한 국가방위 중심군으로서 그 역할을 확고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육군의 변화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의 '강한친구'인 우리 육군이 확고히 지킬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 임관빈 실장

1976년 육사 32기로 임관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美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과 Armed Forces Staff College,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에서 군사학과 안보정책에 대한 공부를 마쳤다. 최근에는 대통령 비서실, 제2군단 참모장,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정책처장을 역임하고 제6보병사단장을 거쳐 현재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본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육군혁신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다.

# 6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매력이 경쟁력이다

1504회 6월 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지금 한국사회는 '권력형 사회'에서 '매력형 사회'로 변하고 있다. 권력과 금력은 독재자가 있거나 부패한 사회에서 힘을 발휘했지만 사회가 민주화되고 투명해지면서 권력과 금력의 힘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매력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매력'이 없으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센 힘이 '사람을 끄는 힘'으로 부각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매력이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도깨비처럼 홀리는 힘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을 이끌며, 가치와 행복을 창조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존경하는 인간'보다 '매력적인 인간'을 선택하고, 취업할 때는 '존경받는 기업'보다 '매력적인 기업'에 관심을 갖는다.

이에 초일류 기업의 개념도 높은 매출기업에서 높은 매력기업으로 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개념 또한 매력이 높아 사람과 돈을 끌어들이는 국가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인재의 조건도 과거 권력형 인간이 아닌 인본주의적, 수평적 사고, 유연성, 학습, 설득협상, 칭찬 기술, 감성적, 창의적 성품을 지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지난 3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에 취임한 윤은기 총장을 초빙하여 신 경쟁력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매력'을 가꾸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경영

1505회 6월 14일 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룸

"당신 자신이 되라(Be Yourself)"는 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실제로 썬 웰치는 이 말을 듣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개발해 '온리 원'이 되었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그 결심을 실천했고 누구보다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음이란 것이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 주고 존중해주고 나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에'를 충족해줄 존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대인관계에서나 가족관계, 사업에서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이미 나르시시즘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인간의 심리를 제대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마련이다.

리더의 자리는 험난하다.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도 가장 먼저 쏜다. 또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위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두 가지를 다 잘해내기 위해 나르시시즘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양창순 대인관계클리닉 원장을 초빙하여 리더의 자기관리 노하우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진실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음경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인하대 경영학 박사 | 전경련 국제경영원 자문교수 | 공군대학교 명예교수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기업사례연구학회 회장 | 한국생산성학회 부회장 | (사)대한골프협회 운영위원 | (주)BS컨설팅컴퍼니 회장

(상훈) 한국방송공사 사장 감사패, 산업교육연합회 BEST 감사상, 산업교육대상 명강사 부문 수상  
(저서) 정보학특강, 時테크-시간창조의 기술, 빠른의 시테크 느림의 시테크, 윤은기의 골프마인드 경영마인드 외



양창순 대인관계클리닉 원장

연세대 의대 졸업 | 연세대 의학 석·박사 | 연세의료원 정신과 전공의, 연구강사 | 서울백제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부원장 | 美 HARBOR-UCLA병원 정신과 방문교수 |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 외래교수 | 한양대 의과대학 정신과 외래교수 | 양창순신경정신과 원장 겸 대인관계클리닉 원장

(저서) 이젠 부모 노릇 신나게 합시다, 표현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 당신 자신이 되라 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 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익** 판도라TV 사장

경희대 기계공학과 졸업 | 경희대 기계공학 석사 | 1994년 대우고등기술연구원(AE) 자동차연구실 | 1996년 (주)시작시스템즈 설립 | 1999년 레떼닷컴 오픈 | 2004년 (주)판도라TV 설립, 사장

<상훈> 대우고등기술연구원 특허왕, 대통령비서실장상, 정보통신부장관상, 2006년 IT분야 올해의 인물 선정



**강창희** 미래셋자산운용 투자연구소 소장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 | 日 도시사(同志社) 대 상학 석사 | 1973년 한국증권거래소 입사 | 대우증권 조사과장, 도쿄사무소장, 국제영업부장, 국제본부장, 리서치본부장 | 현대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 굿모닝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위원 | 성균관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상훈> 한국증권업협회 공로상, 제6회 매경증권인상 공로상

<저서> 글로벌 금융업시대의 증권·투신 경영전략, 직접금융시대의 증권·투신 경영전략, 30세 이후의 인생재테크 펀드투자로 시작하라 외

##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 UCC

1506회 6월 2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UCC(사용자제작콘텐츠)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CC가 각광받게 된 것은 웹2.0의 영향으로 인터넷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일반인의 참여와 풍성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선정했다. 웹서핑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댓글을 다는 수준에 그쳤던 네티즌들이 이제 당당히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사실 UCC는 우리나라가 원조다. '판도라TV'는 동영상 UCC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의 유튜브보다도 먼저 UCC를 선보였다. 지금은 하루 평균 이용자 170만명에 네티즌이 클릭하는 동영상만 하루 평균 7000만건이 넘는다. 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만의 결과다. 특히 판도라TV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의 알토스벤처에서 60억원을 투자 받은 데 이어 최근 미국 유명 벤처캐피털인 DCM에서 1000만달러의 투자를 받아 화제가 됐다. 이처럼 UCC가 산업화되면서 이제는 콘텐츠의 양보다 네티즌이 필요한 동영상을 얼마나 쉽게 찾아주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UCC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인권·저작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인터넷 기업인 1세대로서 올해 1억명이 판도라TV를 보게 하겠다고 선언한 김경익 판도라TV 사장을 초빙하여 판도라TV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함께 UCC산업의 향후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인생 이모작시대의 생애설계와 자산운용

1507회 6월 2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생애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래 사는 위험'이다. 퇴직 후의 긴 인생을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노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 후에 모자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역 시절 못지 않게 긴 후반기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각자에게 맞는 일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노후대비 자산운용이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면 50대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5 대 5 정도가 적절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정한 후에는 해당 비율만큼의 금융자산을 골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운용 결과를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보다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가 운용해주는 펀드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 본업을 가진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큰 투자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제대로 된 인생설계가 있어야 돈도 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투자교육 강의 1000회 기록을 달성한 강창희 소장을 초빙하여 현역 못지 않은 후반기 생애를 설계하는 현명한 방법과 자산운용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5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기념포럼

# 세계화시대, 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과제

5월 3일(목)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주제발표

한덕수 국무총리

### 패널토의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태익 한국유라시아포럼 대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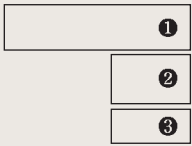
**세계화** 시대의 트렌드는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이념과 구조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하나의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화'라는 현상이다. 세계화는 한마디로 국가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물자, 사람,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계속될 것이고, 다소간의 지장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발전 활용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다. 또 세계화는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인들의 생활수준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아시아 한국의 역할 커지고 있어

아시아와 한반도의 트렌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로 아시아와 한반도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전 세계 GDP에서 아시아의 비중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1980년 20%이던 비중이 2020년에는 4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아시아와 한반도는 좀 더 상호의존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이 52%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역대 거래 43%보다 높다. EU의 58%에 비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시아가 가장 빨리 성장하면서 지역 내 상호의존도





- ① 1500회 기념포럼에 참가한 300여명의 청중들
- ②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③ 귀빈들이 1500회 기념 케익커팅을 하고있다.

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시아 지역에는 절대 빈곤국에서 선진국까지 다양한 국가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이것이 경제통합이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에는 다양성이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냉전체제가 모두 붕괴된 상태에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지 않고서는 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가 세계화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제는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이미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문제, 동아시아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한국은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냉전의 마지막 유산이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문제, 6자회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과거의 사고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10대 무역대국이다. 우리 외교 수준 또한 과거와 달리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한미FTA 한다고 미국의 51번째 주 되지는 않아

그렇다면 세계화시대에 세계화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될까. 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EU와의 FTA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미국과 FTA가 되면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한 나라 중 그 어느 나라도 미국에 종속된 예를 보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은 과거 5천년 역사 중 중화사상을 갖고 있는 중국이 옆에 있었음에도 독특한 문화를 유지해왔다. 오히려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민족의식이 깨어 있었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과의 FTA를 했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미국화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졸속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화시대에 세계화를 잘 활용한 나라들이 과연 성공했을까.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60년대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던 나라들은 모두 경제를 과감히 열고 밖으로 나가 세계를 안으로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뒤를 따른 나라가 79년부터의 중국, 91년부터의 인도 등이다. 최근 중국은 1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도 최근 9%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 폴란드, 헝가리, 체코도 EU와 경제적으로 통합하면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개방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국가의 체제를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족주의에 강한 그들이 EU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개방을 통해서 경제통합을 이루고 서구와 교역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중속이론의 메카였었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국가들도 90년대 들어 민주적 체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칠레는 우리와 FTA를 체결했고, 멕시코는 93년 NAFTA에 가입했는데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가장 즐기고 있는 나라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해 멕시코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멕시코는 조세부담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가의 재원은 항상 빠듯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이다.

이틀 전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10년 동안의 이행기간을 거치는 2018년이면 우리 경제규모가 80조원 늘게 되어 있다. 2000년 기준으로 16조원이 2018년부터 매년 추가적인 조세재원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바로 이 자금으로 교육을 하고 사회안전망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어떤 분이 이런 발표를 했더니, '이것은 개그다'라는 글을 썼다. 만약 비판을 하고 싶다면 대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느 추정이 틀렸고, 생산성향상을 예측한 어느 숫자가 틀리다는 근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개그'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감정을 가지고 정책을 할 수는 없다.

### 북한문제 역시 세계화 관점에서 봐야

#### 핵 가치 높을 때 세계화 물결 타는 것이 북한에 유리

한반도에서 북한의 문제는 분명하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지금 북한 체제는 개혁 개방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성이 있다. 아직도 국제금융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결국 우리가 북한을 좀 더 시장경제에 가깝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조치를 한 적이 있다. 지금 북한 전역에 약 1천개 이상의 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또 배급제에 의해 배급돼야 할 식량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결국 개방과 시장경제가 북한의 빈곤을 탈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우리 주변 국가들,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나서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때 가질 수 있는 우려는 국제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개혁과 개방을 하더라도 북한의 내부적인 정치체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무력으로 인한 합병이나 공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문제는 북한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이런 이득을 마다하고 핵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이 가진 핵에 대해 대비하게 될 것이다. 핵이라는 것은 혼자 가졌을 때 강한 것이지만 모든 나라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무기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북한으로 보서는 핵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개혁과 개방으로 체제를 뜯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모두 얻을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가진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 한국,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산성 높이는 것이 과제

####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세계화시대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부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과제는 한마디로 '한국의 생산성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시대라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또 아시아가 통합된다는 것은 아시아가 좀 더 자유로운 교역체제를 갖추는 것이고 아시아의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온다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발전에 동안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 사회체제, 국가체제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정치권의 간곡한 건의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개헌발의안을 유보하셨다. 그날 오후 대통령을 모시고 전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자원배분계획'에 관한 회의를 했다. 많은 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장관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분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무상원조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처를 다녀봤는데, 산자부에 갔을 때는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었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갔을 때는 무상원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봤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고백을 해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국가와 사회가 체제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성장과 국가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높이는 쌍두마차라고 고백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 반드시 소외계층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소외계층을 국가가 외면하면 '인간의 얼굴이 없는 시장경제'가 된다. 그런 체제는 어떤 나라도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시장경제를 원한다면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 그 결과로 OECD 30개 국가 중 지원규모가 꼴찌이다. OECD 평균이 23~24% 인데, 우리는 사회비용 지출 비율이 GDP 대비 8.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전2030'이라는 장기 플랜을 만들었다.

'비2030'을 통해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 발표를 두고 '또 복지 타령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올려서 2020년에는 미국 수준의 공공사회복지 정책까지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OECD 평균 수준 정도로 가자는 것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이것만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이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며 동반성장의 핵심이 된다.

### 세계화 적극 활용하는 정책 떠나갈 것

결론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낙관적으로 본다. 특히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결정적인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투명하게 하지 않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정책은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환경은 더욱 투명해지고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고,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등 1500페이지에 이르는 명확한 문서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5월 중순부터는 여러분에게도 모두 공개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모든 계기가 우리가 세계화를 더욱 활용해서 발전하고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내서 우리의 동포인 북한 동포들이 세계화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적인 정책을 투명하게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사진 왼쪽부터 이경태 원장, 이수영 회장, 한덕수 총리, 장만기 회장, 정태익 대표

### 패널토의 1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금 우리는 세계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미FTA 체결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기회와 도전을 모두 준다.

미국과 경쟁하려면 우선 미국과 한국의 기업 토양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 미국은 규제가 강하면서도 규제가 없는 나라이다. 한국은 규제가 없으면서도 규제가 강한 나라이다. 이 말은 기업을 하면서 진입장벽이 나 정부의 간섭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처럼 진입장벽이 없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 가려면 기업의 성적보다는 일자리창출과 창업에 주안점을 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시스템 중에서 현재 포지티브시스템에 있는 것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한미FTA가 경제발전의 토양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총리께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한덕수 총리

규제완화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환경이나 안전 등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규제는 존치하고 필요에 따라 강화도 해야겠지만 경제적 규제는 없애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회적 규제도 두 가지가 있다. 사회적 규제를 기업이 잘 지키게 하는 조력자로서 규제를 하는 것과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규제를 하는 당국의 힘을 인식하도록 하는 접근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각 시도가 어떻게 하는 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곧 시도지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해서 협력하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지방의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면 할수록 그 지방이 살찌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 패널토의 2

정태익 한국유라시아포럼 대표



21세기는 중국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또 변화하는 동북아의 국제적 여건이 한반도 장래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다. 특히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관련해 현재 2.13합의 과정이 BDA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데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기 바란다.



한덕수 총리

냉전체제 붕괴 후 세계의 안보,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과 중국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급속히 부상하는 나라로 2030년쯤에는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경쟁과 협력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이다.

결국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의 외교도 세계화를 염두에 둔 세계화외교에 역점을 뒀야 한다. 세계화외교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즉, 국제적인 가치, 국제적인 원칙을 지키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 인권, 안보, 환경, 테러문제 등이 모두 국제적인 관심사이다. 이런 문제에 외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외교가 세계화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북핵문제는 낙관적으로 본다.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따른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성공단은 북한으로 봐서는 개혁을 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개혁을 통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력의 생활여건이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힘을 북한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반영되어 2.13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행이 늦어지는 것

은 순전히 북한 내부의 기술적 문제 때문이다. 북한의 국제금융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데서 오는 시간의 지연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급속히 해결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지금이 시작이다. 북핵문제가 2.13합의 이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3합의가 이행되면서 장기간에 걸칠 수 있는 북핵의 폐기라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성 있게 국제사회와 협조해가면서 협력해야 한다.

### 패널토의 3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데, 우리가 3.25정책을 고수할 것이냐, 깰 것인가 하는 흑백논리에만 함몰되어 대립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좋은 학생들을 뽑을 것인지 먼저 대학이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문제를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사회에 공론화하고 이것을 향후 대통령선거에서 건설적인 정책토론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중국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몇 십 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농업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처음부터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되 협상 과정에서 서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한중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다.



한덕수 총리

한중FTA는 연말까지로 생각하고 산·관·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과 언젠가는 해야 하는 FTA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 농산물 경쟁이 심하고, 노동집약적 산업도 경쟁이 심하다. 때문에 한미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을 먼저 충분히 구조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 EUFTA를 먼저 하고 연말쯤 한중FTA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문제는 며칠 전 전교조와 교총 위원장 등과 논의한 적이 있다. 3.25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공교육을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좀 더 경쟁을 촉진할 것인가, 어떻게 퀄리티 높은 대학을 만들 것인가, 대학에 어떻게 하면 재원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대학의 학교기업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노래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탁계석 음악평론가



탁계석 선생은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500회를 기념하기 위해 전준선 선생과 함께 '좋은 사람 좋은 세상'이라는 원가를 만들어 지난 5월 3일 본원에 헌정했다.

**노래**는 가슴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를 부른다. 말의 표현을 넘어선 감정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순간 누구나가 웅변가가 될 수는 없지만 노래를 함께 부를 수는 있다. 너와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마법.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름다운 멜로디나 신나는 리듬에 있다. 선율과 힘찬 박자는 원초적인 감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삼국지에도 집 떠나온 병사에게 고향 생각을 떠올리는 비파를 연주해 마음을 혼드는 심리전을 펼치지 않았던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모두가 아는 새마을 노래다. 그때 우리는 참 열심히 일했다.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어찌 늦잠을 잘 수 있겠는가. 역사에서 음악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은 독일이다. 전후의 흐트러진 국민의 단결을 위해 '합창'을 발전시켰다. 히틀러도 음악을 매우 사랑했다. 바그너는 신화 오페라를 만들어 독일 국민의 위대성을 만들어 갔다. 베르디도 이태리가 오스트리아의 억압을 받을 때, 오페라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현 정부의 사람들은 청와대 입성 후에도 입을 위한 행진곡 '산자여 따르라'를 불렀다. 엇그제 5.18 기념식에서도 그 노래를 불렀다. 사실 '연설'보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감회'가 남달랐으리라. '억압의 시절' '아침이슬'도 민주화를 상징하는 노래였다.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학도가', 일제하의 '봉선화'도 국민의 울분을 달래는 국민정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사람 좋은 세상'을 표방하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의 조찬모임은 한국 미래의 발전을 주도해 가는 최고의 지성 리더들의 모임이다. 매마침 1500회를 보면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 햇살'은 미래를 여는 희망의 분위기를 살린 것이고, 전체 노랫말은 서로 모여 창조와 믿음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그러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친근한 노래를 만들려고 했다. 노래를 만들면서 가능한 딱딱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심했다. 여러 회사의 사가들이 대부분 불려지지 않는 것은 가사의 내용이 너무 권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곡을 맡은 전준선 소년소녀합창단연합회 회장은 평생 어린이합창을 지휘하고 모임을 이끌어온 합창계의 산증인이다. 밝은 악상과 경쾌한 리듬이어서 누구라도 앉은자리에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작

곡된 것 같다.

필자는 우리친구 청계천(서울시), 독도의 노래(국방부), 뉴라이트 송(뉴라이트연합), 비바 아리랑(월드컵 송), 웰컴 투 대구(2011년 육상 기념) 등 수십 편을 작사했고,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다.

다행히 '좋은 사람 좋은 세상'은 인간개발연구원의 원가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불려져도 좋을 것 같다. 벌써 여러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에서 악보를 달라고 한다. 조찬에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를 회원들의 밝은 표정, 노래를 부른 후 흥얼거리며 나서는 경쾌한 발걸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진다. [blog.naver.com/musictak](http://blog.naver.com/musictak)

## '좋은 사람 좋은 세상'

탁계석 작사  
김종호 작곡

햇살 처 - 럽 솟아 나 - 는 맑은 마음  
바다 처 - 럽 출렁 이 - 는 내 일의 꿈

따뜻한 우리 마음을 행복 - 한 세상  
따뜻한 우리 마음을 행복 - 한 세상

매로 는 고통 있어 도 날 마 다 깨 어  
창 조 와 신 념 으 - 로 오 늘 도 힘 차

새 별 을 여 는 지 혜 회 맘 찬 - 아 침  
내 일 을 여 는 우리 아 름 다운 만 남

Be tter peo - ple 좋은 사 - 람 Be - tter world 좋은 세 상  
(좋은 좋은 세상)

좋은 세 - 상을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 들어 요



## 회원 한 분 추천하기 운동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회, 100회, 500회, 1000회...1500회"

인간개발연구원이 존경하는 회원님 그리고 강사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새벽을 깨우며 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한 횡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오를 경이적인 숫자라고 감탄해 마지않습니다.

첫모임이 시작된 1975년 2월에는 온 나라가 수출중대, 고도성장을 외치며 물량적인 팽창에 몰두할 때 인간개발을 들고 나왔으니 무모한 출발이었습니다. "인간개발이 도대체 뭐냐?"는 질문이 단골메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오늘 날 인간개발, 인재개발, 인적자원개발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고, 기업의 핵심역량과 기본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모임에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조찬학습문화의 원조, 공부하는 모임, 성공한 사람들, 평생학습의 모델'이라는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강사로 서지 않으면 명강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생길 만큼 명품조찬모임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1500회 기념강사로 나오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아침 일찍 부지런히 공부한 덕택에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두루 근무하다가 총리가 되고 보니 정부의 역할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는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둘째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나화장품의 유상옥 회장님은 "매주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는 것이 큰 기쁨이었으며, 50대 중반에 창업을 하여 30년 동안 기업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인간개발연구원의 조찬학습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아침공부의 매력과 위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 참여하는 경영자와 전문가들은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영자가 앞장서서 학습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조직이 혁신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지 않는 CEO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는 항상 뉴스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뉴스를 전하면 지식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 조찬세미나에 참석하면 최고전문가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는 것과 같아서 항상 뉴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에 오른 강사님들이 일생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온 몸으로 쏟아내는 자리입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매주 다양한 강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3년만 열심히 출석하면 웬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축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원은 회원님과 강사님들의 추천에 의해 가입해 왔습니다. 이제 1500회를 넘기면서 저희 연구회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노년시대신문의 발행인이신 이심 회장님은 "회원 한 분 추천하기"를 정식 의제로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6월부터 회원 확장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한 분이 저희 연구원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과 강사님께서 "회원 한 분 추천하기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 연구회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추천해 주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500회 기념 강연집을 작은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찬연구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최초·최고의 학습모임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회원님과 강사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 덕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소중한 회원 한 분을 꼭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원장 양병우 올림

# 30년 교육기업 일궈온 연구하는 교육자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



JED 재능그룹 본사사옥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이 '재능의 씨앗'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0년 동안 교육사업이라는 한 우물을 파왔습니다. 이제 그 흔적은 빛바랜 수십권의 연구노트에 고스란히 남게 됐네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재능그룹의 박성훈 회장. 그는 단순 암기와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과외 열풍으로 인한 교육 기회 불균형 등 한국의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내 손으로 제대로 된 한국식 학습교재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77년 재능교육을 설립했다. 그래서 박 회장에게 재능교육은 사업이기보다 교육자로서의 연구 과제였는지도 모른다.

박 회장은 창업 후 혼자서 스스로학습교재와 학습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후로도 13년여에 걸쳐 연구개발을 손수 진두지휘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렇게 태어난 스스로학습교재는 국내 최초의 토종 교육 브랜드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환경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창의적인 인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스스로 학습법'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더욱이 재능교육을 모태로 재능방송, 재능아카데미, 재능대학 등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교육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종합교육문화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시화하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은 창업 초기 연구개발에 전력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탓에 '무치입경영' 원칙을 견지하면서 안정적인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도 지난 30년이 미완성이라고 믿는 그에게 향후 30년을 이어갈 답은 투명경영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종합교육문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창업을 선언한 재능그룹의 박성훈 회장을 만나 교육기업으로서의 초창기 어려웠던 일들을 회상해 보고 향후 30년을 위한 그룹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대담: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사진 오경근 원장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재능교육의 발자취를 소개해 주시지요.**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면 누구나 스스로 창의적인 인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재능교육의 첫걸음이었죠. 그 믿음으로 지난 30년 동안 교육사업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 재능그룹이 지난 5월 4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77년 재능교육을 설립한 후 올바른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아이들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야겠다는 신념으로 '스스로학습법'을 창안해 보급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초창기 15년간은 연구개발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스스로교육철학'과 '스스로학습법'을 인정해 준 수백만 회원들 덕분에 명실상부한 종합교육문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선진 교육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개인별 능력별 학습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70년대 초반 미국 유학생할 중 처음으로 접한 '프로그램 학습'이론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수학(修學)능력을 학습전문 진단회사에서 테스트한 후 학력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교육하는 능력별 학습이 유행이었어요. 학생들의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죠. 처음 이 학습법을 접하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 반에 70명 이상이 모여서 수업을 들었어요. 당연히 개개인의 능력차가 고려되지 않은 단순 암기와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귀국했는데, 일본에서 수입된 학습지가 보급되어 인기를 끌고 있던군요.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재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학습과는 차이가 있더군요. 학습내용도 단순한 계산력

위주로 구성돼 있고, 현대수학의 개념과도 맞지 않았어요. 이를 보고 기존의 학습지와는 차별화 된 학습지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재능학습 교재는 창의성과 원리이해를 중시하는 현대수학의 흐름을 반영하고,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프로그램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학습' 이론은 어떤 것입니까.**

프로그램식 학습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강화이론'의 스키너(B.F.Skinner) 박사입니다. 강화이론은 S-R-R(자극-반응-강화)을 기본공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유기체의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자극을 주고 반응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보상(강화)을 하면 그 행동이 고정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학습에 반영한 것이 프로그램 학습법이죠. 학습의 경우 분명히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목표가 있으므로 이를 잘게 나누어 쉽게 만들고 계속 성공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으로 강화되면, 주어진 학습목표를 100%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셉에 기초하여 재능학습 교재는 철저히 프로그램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학습의 각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적극적 반응의 원리), 학습결과를 즉시 알려주며(즉시확인 원리), 쉬운 것부터 점차 어려운 단계로 진행하여 학습자가 무난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식(Small Step의 원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재능교육의 '스스로학습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스스로학습법은 이론에만 그치는 형이상학적인 교육이론이 아닙니다.



**박성훈 회장**

1945년 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美 브릿지포드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한국의 교육현실에 맞는 학습교재를 만들고자 재능교육을 설립해 오늘날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재능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 교육부장관상, 한국교육산업대상 등을 수상했다.

확고한 이념적 기반 위에 실용적인 학습원리와 방법을 담고 있어요. 학습 교재와 시스템,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죠. 개인별 능력별 학습을 가능케 하는 스스로학습시스템,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선생님,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을 갖게 하는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될 때, 학습자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수동적,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생존할 수 있고, 이것이 평생학습으로 이어져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학습효과 면에서도 스스로 학습은 수동적인 학습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학습법은 학습자의 학습 출발점을 정확히 제시하여 쉬운 곳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하고, 집중력을 길러주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학습습관이 형성되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는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평가시스템과 교재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교재를 완성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학습법 연구와 개발은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낯선 분야였 습니다. 변변한 연구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3년여 동안 매일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매달렸죠. 덕분에 사생활은 희생 아닌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연구개발비와 직원들의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쓰기도 하고, 살던 집까지 처분해야 했을 정도로 재정적 부담도 심했어요. 그때는 빚만 없다면 리어카를 끌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글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처럼 아이들이 '재능의 씨앗'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30년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의 흔적인 빛바랜 연구노트 수십권이 당시 제 고민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부도위기를 맞으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고 하던데요.**

말씀드렸듯이 사업 초창기 자금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죠. 사채도 담보가 있어야 했고, 은행대출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무시 못했으니까요. 80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 2~3개월 뒤 갚을 계획으로 3천만원 어음할인을 했어요. 하지만 만기가 됐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은행에 만기 연장을 부탁하고, 저는 직원들과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다녀오던 날 회사에 갔더니 어음이 돌아와 1차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됐지만 그 때 처음으로 부도라는 쓰라린 경험을 해봤습니다.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가 크면 클수록 위험부담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회사면 실패도 작겠지만 크면 클수록 욕심을 내게 돼 실패의 크기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항상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의 책임 하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는 후로는 어떤 위험이 닥쳐도 '무차입경영'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교육산업의 세계화 전략 역시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재능교육의 해외진출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재능교육은 92년 미국 LA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해외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는 북경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 맞는 프랜차이즈 사업시스템을 개발해 한국 교육업계 최초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죠. 현재 미국, 중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9개 지사를 두고 현지인 및 교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외 회원수와 매출이 국내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이중 상당 부분이 순수 로열티 수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토종 학습법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산업은 지식기반사회의 주력산업입니다. 특히 학습시스템 분야는 교육산업의 핵심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고유의 노하우가 선진국으로 수출된다는 점은 재능교육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여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JEI Platz'를 개관하셨는데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요.**

창립 30주년 기업사업의 하나로 고품격 비즈니스센터를 지향하는 'JEI Platz'를 개관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최초의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인 JEI Platz는 연면적 3만평에 지하4층, 지상15층으로 단지 내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죠.

JEI Platz는 교육 관련 콘텐츠와 e-learning 관련 IT업체 및 디자인업체에 우선 입주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또 건물 지원시설에 수학 및 과학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고품격 비즈니스 센터 JEI Platz



을 테마로 한 체험형 박물관을 설치해 교육 문화 관련 입주업체와 전시 시설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죠. 이를 통해 JEI Platz는 교육·IT·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재능그룹은 종합교육문화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어린이를 위한 교육, 교양, 문화,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JEI재능방송도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로써 재능그룹의 교육철학과 기업이념이 JEI Platz를 통해 서울디지털 단지를 서울의 새로운 기업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재능그룹의 향후 사업활동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재능그룹은 창립 30주년을 맞는 동안 재능교육을 모태로 재능방송, English TV, 재능아카데미, 재능대학, 재능유통 등 10여개 계열사에 연 4500억원 매출의 교육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재능'이란 말 속에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씨앗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후 경쟁사와 구분되는 사명(社名)으로 기능했고, 그룹으로 성장해가면서 '재능'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일귀운 기업의 역사와 문화로서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세계인의 재능을 꽃피워 가는 글로벌 종합교육문화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의미로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재능그룹은 사회의 교육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정서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재능교육은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륜을 바탕으로 'A Better Life through Better Education(보다 나은 교육을 통한 보다 나은 삶으로의 변화)'을 지향하는 평생교육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1만여 재능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 교육사업에 임하는 경영자의 가치관은 기업의 경영관과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회장님만의 경영철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회사나 그 구성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끊임없이 변화,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성원 각자가 회사이고 경영자라는 생각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이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바로 '스스로경영'입니다. 회사나 그 구성원이 스스로경영 마인드로 무장할 때 회사는 '강한 회사', '튼튼한 회사'가 됩니다. 덩치가 크고 매출액이 많다고 강한 회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실이 중요하죠.

저는 제 자신과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회사를 차리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한 회사를 튼튼하게 키워야지,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 양병무 원장과 박성훈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다른 회사를 창업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 이와 함께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회장님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재능인은 인간중시, 행동중시, 고객중시라는 3가지 경영이념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간중시는 사람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는 21세기 지식사회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중시의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개인별 능력별 차별화'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상과 대우가 달라져야 잘하는 사람은 더욱 힘을 얻고 부족한 사람은 분발하겠죠. 이처럼 개개인 이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인간개발 경영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강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회원으로 활동하시며 평소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3일로 목요일 초찬세미나가 1500회를 돌파했다는 것은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연구원 회원의 한 명으로서 축하드립니다. 32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목요일 새벽을 깨워왔다는 것은 어느 기관의 역사도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기록이에요.

사람은 항상 변화에 대한 욕구, 모르는 것에 대한 학습의 욕구, 기존 지식에 대한 검증의 욕구가 있습니다. 초찬 학습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스스로 배우고, 변화하고자 하는 분들이죠. 이러한 지식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고, 그 역할을 32년간 묵묵히 실천해 온 것이 인간개발연구원입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학습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재능교육의 '스스로 학습법'과 닮은 점이 많아요.

연구원이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인간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주제와 사업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의 새벽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 사람에게서 구하라



구분형 구분형변화경영연구소 소장

리더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이자 자신을 닮는 사람이다. 리더십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능력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감동시키고 리더가 되는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서 구하라!

이번 독서경영 오픈세미나에서 구분형 소장이 던진 화두이다. <사람에게서 구하라>는 리더십과 경영이 주제지만 조직, 시스템, 경영이론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사람 이야기뿐이다. 동양의 고전에서 현대인들을 위한 인간경영 리더십의 지혜를 이끌어 낸 그는 '미래를 이끄는 사람은 과거를 창조적으로 활용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5월 21일 강남우체국빌딩 12층 대강당에서 본원 회원 및 회원사 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오픈세미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IBM에서 오랫동안 변화경영 실무를 총괄하고 변화경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분형 소장. 그는 인문학과 경영학을 접목시켜온 우리 시대 대표적인 경영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2500년 전의 춘추전국시대가 21세기와 가장 닮았으며, 고전에서 답을 찾았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춘추전국시대는 21세기와 매우 비슷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매우 불안한 시대였다.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의 시대였고,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였다. 지금 우리 또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둘째, 어떤 사람을 얻었는가에 따라 한 나라가 성장하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는 시대였다. 매킨지는 21세기의 특징을 인재전쟁의 시대(War for Talents)로 규정했다. 인재를 얻은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아이디어들이 시도되는 시대였다. 모든 아이디어, 사상이 모색되고 실험되는 시대였다는 점에서 21세기와 비슷하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미래에 대한 잠재성이 있다. 과거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이 어떤 요소로 미래를 구성하게 될 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구분형 소장은 이 점을 중시하고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리더십의 본질을 파헤친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내게 없는 힘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다. 그것이 리더이고 리더십이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내가 매력적이어야 한다. 둘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셋째, 비전이 있어야 한다."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 된다고 설명한다. "사람은 찻잔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밥사발로 태어나기도 하고 항아리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는 타고난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각각의 그릇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게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그릇으로 자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무게가 삶을 성장하게 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짐이 어깨보다 무거우면 결국 쓰러진다. 자기 몸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에도 폐를 끼친다. 이는 곧 자기의 역량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자신을 매력적인 인물로 만드는 핵심이다.

"춘추전국시대에 중산군(中山君)이라는 사람이 가신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 풍성한 음식이 오고 갔고, 이제 양고기 국을 먹을 차례가 되었다. 마침 국물이 부족하여 맨 마지막에 있던 사마자기(司馬子期)는 국물을 먹지 못했다. 사마자기는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고 이웃나라인 초나라로 가 벼슬을 했다. 그는 훗날 군사를 이끌고 중산군을 공격한다. 싸움에서 패한 중산군은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때 마침 얼굴도 모르는 두 명의 청년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다. 중산군은 그들이



왜 자신을 구해줬는지 몰았다. 그들은 '저희 부친께서 배가 고파서 길에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 때 중산군께서 밥 한 덩이를 주셨습니다. 부친은 그 밥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만일 중산군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보답하라고 이르셨습니다'라고 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중산군은 양고기 국물 한 그릇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밥 한 덩이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의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면, 스스로가 매력적이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조직을 이끌어갈 비전이 있어야 한다**

"진나라의 예양(豫讓)은 지백(智伯)을 섬겼는데, 지백이 조양자(趙襄子)와의 싸움에서 저 일가족은 모두 죽었고, 혼자 도망을 쳤다. 복수를 결심한 예양은 비수를 품고 조양자의 집에 침입했지만 결국 잡히고 만다. 조양자는 예양

의 충성심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면 그만이라며 그를 살려 보냈다. 예양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온 몸에 옷칠을 하고 숯가루를 먹어 목소리를 바꾸는 등 변장을 하고 다리 밑에 숨어서 조양자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번에도 잡히고 말았다. 조양자는 그를 죽이기 전에 '그동안 여러 사람을 섬겼을텐데, 유독 지백에게만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예양은 '여러 사람을 섬겼지만 지백만이 나를 선비로 대해줬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선비로서 그 의리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통해 구 소장은 한 사람을 섬기는 이의 태도를 일깨워준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줘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러면 분명 그 사람도 나의 성공을 도와주게 된다. 이런 교환의 달이 없으면 리더 자신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이다.

"춘추전국시대 공자의 사상은 지난 2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사상가였던 공자가 노나라에서 사구(司寇)라는 직책으로 정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자가 권력을 잡은 지 1주일만에 놀라운 일을 벌인다. 당시 유명한 대부였던 소정묘(少正卯)라

는 사람을 주살(誅殺)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말이 많아지자 공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의 죄가 있다. 첫째는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르는데 마음이 음험한 것, 둘째는 행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도 고집불통인 것, 셋째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달변인 것, 넷째는 추잡한 것을 외고 다니면서도 두루두루 아는 것이 많아 박학다식해 보이는 것, 다섯째는 그릇된 일에 찬동하고 그곳에 분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죽여도 되는데, 소정묘는 이 죄악을 두루 겸했으니 죽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고가 편협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지명적 약점이 생긴다는 말은 21세기에도 중요한 명제다. 우리는 배움에 있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여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지식에 고착되어 있다. 이런 인재는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소정묘 같은 인물은 인재로 보여지기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편협한 사람은 결국 조직을 편협한 쪽으로 이끌고 간다. 투명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뭔가에 걸려들게 만든다. 봉당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조직에 파벌을 만들고 시너지를 저해한다. 결국 그 사람의 이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노키아의 사명 슬로건은 '커넥팅 피플(connecting people)'이다. 이 말은 '우리는 무선통신단말기 제조유통판매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비즈니스에 종사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이 비전이다. IBM은 회사명의 속뜻으로 유명하다.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의 약자가 IBM이다. 컴퓨터는 학교나 연구소에서만 사용하는 '과학기계'로 인식됐었다. 그러나 IBM 경영자들은 '이제 컴퓨터는 비즈니스 머신이다'라고 발표했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계로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 팔겠다고 선언한다. IBM이라는 단어에 IBM이 가야 할 경영전략, 방향이 모두 들어 있다."

구 소장은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비전'을 강조했다. 결국 리더는 조직을 어딘가 한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어디로'가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다. 각자가 몸담고 있는 직업을 정의하는 자신만의 언어,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 그 언어를 찾을 때, 비로소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비전의 힘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  
구본형 소장의 명함에는 그의 비전이 들어있다. '변화경영전문가' 구본형은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의 힘을 믿는다. 세상이 만들어 주는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작은 힘을 마음껏 쓰고 가는 것이 자기혁명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KXHD)





# 내 삶에 꼭 골려야 될 '인생심포'

허태근 이화여대 주임교수



**남** 보기에 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세상 살기가 무섭다며, 딸린 식구가 없다면 멀리 도망가고 싶다고 뉘두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삶의 균형을 잡는 요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심포의 미학을 몰라서 저지르는 삶의 오류이다.

## 인생의 여섯 가지 공 골리기

### 삶에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여유'의 공 놓쳐서는 안돼

필자는 강의 중에 인생성공 공식을 설명하면서 종종 '공 골리기'에 비유해 설명하곤 한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골려야 할 공은 모두 여섯 개가 있다. 우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갈 큰 무기가 되는 '돈'이라는 공을 골려야 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 체제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 줄 '계급' 혹은 '신분'이라는 공을 골려야 됴과 동시에, 기본 중에 기본인 '건강'이라는 공을 골려야 한다. 그리고 삶에 끊임없는 에너지와 기쁨,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행복한 '가정'의 공을 골려야 되



며, 몸의 노화와 상관없이 젊은 생각과 감각을 유지시켜 줄 창의력을 연마시키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위한 '공도' 골려야 한다. 마지막 하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여유'의 공이 있다.

그런데 이 여유의 공은 앞의 다섯 개 공을 골리

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빨리빨리'와 '앞만 보고 전진'을 외쳐대는 현대사회에서 성공에 대한 열망과 압박 때문에 심포의 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란에 숨이 턱에 차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서야 공을 찾느라 허둥댄다. 우왕좌왕 해매다 보면 여섯 개의 공 모두가 제 멋대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덧붙여 숨고르기를 할 여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제 아무리 걸작이라 칭송 받는 명곡이라 할지라도 심포가 하나도 없이 계속 연주된다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정서생활 속에서 무엇을 챙겨야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시간은 만들어 가는 것, 떠나라!

첫째,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을 떠나라.

여행이란 그 곳이 어디든지, 누구를 만난든지, 우리 삶에 내려놓기만 하여도 당신을 비춰줄 마법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여행이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인생좌표를 설정할 기회를

### 허태근 교수

1951년 생으로 명지대, 건국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강남대 유아교육 석사를 거쳐 현재 파일론대 교육학 박사과정 중이다. 정훈아카데미 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 원 운영 아카데미 책임교수, 정훈교육가족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이화여대 유아CEO과정 주임교수로 있으며, (사)한국강사협회 '대한민국 명강사' 22호에 선정된 바 있다.

가질 수 있다. 지친 당신에게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여행의 매력적인 보너스이다.

분기에 한 번은 국내여행을 위한 설계를 하고, 최소한 일년에 한 번은 멀리 해외로 떠나는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자. 시간이 없다는니, 돈이 없다는니 하는 핑계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리자. 시간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당신이 여행을 위한 시간이라 명명하면 그때부터 여행을 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

돈 없어 여행 못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누군가가 그랬지 않던가.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요,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라고. 돈이란 그 돈을 쓸 때에서야 비로소 자기 돈이 되는 것이지, 수익을 벌여놓은들 써보지 못한다면 자기 돈이 아니다. 예술가처럼 낭만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멋진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마법의 부메랑, 도네이션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발전이 가속이 붙으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는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서민 경제의 현주소이다. 봉사(donation)를 통한 재분배가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영국의 어머니들은 양보하라고 가르치고, 일본의 어머니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치고, 미국의 어머니들은 봉사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나가서 일등해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고 가르친다는 지적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봉사는 남에게 내 것을 털어주어서 손해를 보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이상으로 다시 내게 돌아오는 마법의 부메랑 같은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수 있는 사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부자이다.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실천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먹고 어느 단체라도 가입해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내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함께 하는 봉사의 또 다른 이점은 좋은 벼를 사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세상 변화에 발맞추는 방법, 독서


세 번째 제안은 평생 책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책 속에 길이 있고 보물이 있다'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실천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인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독서를 생활화하자. 국민운동을 앞장서 전개하고, 소속된 단체나 기업 내에서 독서운동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어 솔선수범 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은 도태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다.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 구태의연에 물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방패가 바로 끊임없는 독서이다.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한결 같이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성공비법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자녀들에게도 다른 유산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책을 읽는 시간으로 할애하게 하여 평생 독서습관의 토대를 마련해준다면, 천만금의 유산보다 더 큰 가치를 그들 인생에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 인생심포 한 번 짚고 참살이로

우리는 종종 '숨 쉴 틈도 없다'라는 말을 한숨처럼 내뿜고 산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생각해봐야 한다. '숨 쉴 틈도 없이, 어떻게 왜 사는가' 하고 말이다.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드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유찾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여행하고 봉사하고 독서하고 음악을 즐기며, 종교를 갖고 유머와 함께 하는 여유로움을 찾아 멋진 참살이(wellbeing)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 회원 & 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유상욱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이 충남 청양군 대치면 명예면장으로 위촉되었다. 청양군은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김시환 청양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치면 명예면장 위촉 및 환영식을 가졌다.
-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최근 전문직여성한국연맹(BPW)이 수여하는 제14회 'BPW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BPW 골드 어워드'는 매년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녀 평등과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1993년 제정되어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 **블랜차드컨설팅그룹(주) (대표 조천제)**에서 켄 블랜차드 박사의 새로운 도서 <상황대응 리더십>(21세기북스)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켄 블랜차드는 25년간의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을 위대한 기업들(High Performing Organization)의 6가지 성공관리 요소에 대해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황대응 리더십의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심갑보 삼익THK(주) 부회장**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협력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심 부회장은 노사관계제도 개선과 노사안정에 기여한 점과 37년간 삼익THK(주) 전문경영자로 재임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영세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고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발전시켜 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심 부회장은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대한상의 노사인력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다.
- **김창송(성원교역 회장) 회원**은 지난 5월 7일 12시 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대담프로에 출연하여 '정직으로 일군 옥토밭'이란 제목으로 50분간 방송되었다.
- **강석진 CEO컨설팅 그룹 회장**은 지난 5월 8일~13일까지 '현대서양화가 10인 초대전'에 초청되어 서울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 **대성(회장 김영대)**은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룹 명칭을 대성그룹에서 '대성'으로 바꾸고 지난 5월 10일 롯데호텔에서 창업자인故 해강 김수근 명예회장의 전기 <가보니 길이 있더라>의 출간을 기념



하는 출판기념회와 리셉션을 개최했다. 김영대 회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10년, 그리고 창립 100주년을 향해 임직원 모두가 리더가 되고 또 리더를 키우는 참다운 리더십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故 김수근 명예회장의 전기는 대성 창립 60주년 행사준비위원회가 3년의 준비 끝에 펼쳐낸 결과물이다. 전기에는 해강의 출생과 성장, 소년가장 시절의 고생담, 좌절과 성공 등이 나와 있다. 특히 해강이 8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창립과 사업확장, 계열 분리 등 그룹의 역사와 연탄으로 시작해 석유, 도시가스, 해외자원개발까지 나서게 된 에너지그룹의 비전이 담겨 있다.

- **공한수 Big Dream&Success 사장**은 지난 5월 27일 LMI 수료자들과 함께 북한산 등산모임을 가졌다. 한편 공한수 사장은 6월 16일(수) (주)동성진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실시한다.
- **(주)에어랩(사장 황진수) 관계사인 (주)에어화인**이 '제19회 종합건축재료·주택설비전에 제품을 출품한다. (주)벽산 OEM납품 협력사인 에어화인은 벽산을 통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으며, 전시품목은 전열교환 환기장치 및 부자재 등이다. 일본건축재료협회(www.kenzai.or.jp)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007년 6월 6일~9일까지 일본 INDEX-OSAKA에서 개최된다.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김병춘 (주)세원 회장**의 장남 건희군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시 : 2007년 6월 2일 (토) 오후5시
  - 장소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 ※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 **장찬기 해동재단 회장**의 장녀 혜진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시 : 2007년 6월 9일(토) 오후1시
  - 장소 :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

### 사무실 이전 및 연락처 변경

- **김시웅(삼대양개발(주) 부회장) 회원**의 주소가 지난 5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3
  - 전화 : 02-516-2186 / 팩스 : 02-516-2191



# Membership

• **한승우 (삼아솔루션(주) 사장) 회원**은 지난 5월 11일 사무실 이전으로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1 IT20타워 1304호
- 전화 : 02-2027-5840 / 팩스 : 02-2027-5845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태창가족	김서기 사장	6월1일
신용보증기금	김규복 이사장	6월1일
CJ시스템즈	김일한 대표이사	6월1일
(주)한국종합건축사	전상백 대표이사	6월1일
동남갈포공업(주)	서병식 회장	6월5일
J-STEP	성평건 회장	6월6일
(주)대양파이프	곽창선 회장	6월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	6월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호 부사장	6월7일
(주)테크노랜드	서정환 사장	6월13일
(주)정림건축	김정철 명예회장	6월17일
(주)금천코퍼레이션	강연구 사장	6월24일
대성광업개발(주)	김영돈 부사장	6월25일
(주)소예	이상숙 회장	6월27일

## 신규회원



**김영길** 우미토건(주) 대표이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3
- 전화 : 031-728-1860 · 팩스 : 031-728-1897
- 업종 : 건설업 (아파트 건설)



**구건서** BK휴먼캐피탈 대표공인노무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2-2 드림3층
- 전화 : 02-3471-3400 / 011-385-3392
- 업종 : 법무서비스



**김인석** 서울주재연변대표처 대표

- 주소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 전화 : 02-755-7025 · 팩스 : 02-755-7028
- 업종 : 정부소속 대표처



**백현기**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향타워 14층
- 전화 : 02-2188-1006 · 팩스 : 02-2188-1091
- 업종 : 법률서비스



**이윤봉** (주)위즈네트 대표이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탑동 68 첨단기술센터 306호
- 전화 : 031-789-7900 · 팩스 : 031-789-7908
- 업종 : 반도체제조(Hardwied TCP/IP CHIP 생산)



**정지미** 서경대학교 교수 / (주)미진 이사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1 대릉8차 504호
- 전화 : 02-2163-6511 · 팩스 : 02-2163-6787
- 업종 : 무역업(밸브오퍼)



**김광탁** (주)비엘도토 회장

-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이글타운 604호
- 전화 : 02-468-7235~7 · 팩스 : 02-468-7238
- 업종 : 도소매, 광고대행 서비스



**현천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23번지 세양B/D
- 전화 : 02-3703-1130 · 팩스 : 02-737-9091
- 업종 : 법률서비스



**이보규**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 소장/용인대 교수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143-3 송림B/D 302호
- 전화 : 02-412-8801 · 팩스 : 02-424-8722
- 업종 : 교수, 연구기관

## 연구원 소식

### • 회원친선 골프경기 성황리 개최

제15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를 기념하여 지난 5월 25일(금) 본원 골프모임인 인경회를 중심으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골프장으로 인정받은 렉스필드c.c에서 화창한 날씨와 함께 회원친선 골프경기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라운딩 후 만찬 및 시상식 진행을 맡아 수고해주신 우창욱 동명



인쇄 사장께서 우승을 하여 금5돈의 우승트로피와 비단을 상품으로 수상했습니다. 이어 이시원 (주)부천 사장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양대길 영우통산 회장,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이윤수 KCTC 부회장 외 원로회원님들의 참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인경희 임원분들과 협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협 찬 :** 인간개발연구원 사무국 - 현금 200만원  
 인경희 (회장 이심/ 총무 윤건우) - 현금 100만원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기초화장품 2중세트 녹도움프 40세트  
 홍승국 에버그린MST 사장 - 골프용품 선물세트 40세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 웅진쿠키 3점, 골프 참가자 오찬 제공  
 윤건우 삼보주단 사장 - 비단 1필  
 장찬기 해동재단 회장 - 십전대보탕 10상자  
 김광택 비엘토 회장 - 금강약초수 40상자

• 장만기 회장, 중국 길림대 초청 특강



본원 장만기 회장은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길림대학 학생 대상 특강, 길림신문사 초청 상공인 대상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방중 기간 장 회장은 서건일 길림시 당서기를 예방하고, 15일에는 북경 중국과학기술협회 주최로 세계주요 국가 전문가 대회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고 16일 귀국했습니다.

• 양병무 원장, 국토연구원 특강

본원 양병무 원장은 지난 5월 8일 국토연구원의 소모임인 문화생태 연구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최병선 원장 이하 임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치체혁신-리더십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 인간개발연구원 김태균 부원장이 5월 2일부로 취임하게 되어 회원

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김태균 부원장은 1964년 생으로 성균관대에서 산업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산업·조직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1992년 삼성그룹 교육전문인력으로 입사해 삼성인력개발원, 삼성SDS 등에서 인재개발 및 교육 기획 등의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지자체 소식

• 대전 서구 '제5기 서람이자치대학' 개강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가기산)은 지난 5월 18일 주민참여대학인 제5기 서람이자치대학을 개강했다.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지식·교양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서람이자

치대학은 오는 8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총 16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배한성 한국성우협회 이사장의 "나의 삶, 나의 자수성가 이야기"를 첫 강의로 시작해 김인술 온생명살림학교 원장의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6월 8일), 강창희 미래에셋투자연구소장의 "인생이모작시대의 생애설계와 자산운용"(6월 22일)등 유명 강사진의 강의를 이어질 예정이다. 서람이자치대학 참가 희망자는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와 서구청 자치행정과(042-611-6572)로 문의하면 된다.

• 대응제약 베이페스티벌, 윤생진 상무 특강

대응제약(대표 이종욱)은 5월 11일 용평 리조트에서 마케팅 및 영업 직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조 달성을 위한 베이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강연으로는 한국최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되었던 금호아시아나 윤생진 상무를 초청해 성공 철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

# Membership

으며, 직원들의 장기자랑과 축하 공연 및 체육대회를 하며 화합의 축제를 만들었다. 이종욱 대표는 "2010년까지 국내 및 동아시아 등에서 1조 매출을 달성해 세계 50위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감동과 직원 육성 등 핵심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 산악인 허영호 대표 에베레스트 세 번째 등정 성공



세계적인 탐험가이자 본원이 진행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에서 인기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영호(드림앤어드벤처 대표) 산악인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50m) 등정에 또다시 성공했다. 5월 16일 밤부터 셰르파 한 명과 함께 네팔 쪽 동남 루트를 이용해 10시간의 등반 끝에 17일 오전 6시경(현지 시간) 세계 최고봉의 정상에 섰다. 이로써 허영호 대표는 3번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

## • 지자체 전자정부 전반적 향상 - 경남 하동, 함양 수상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자체가 지난해 추진한 전자정부 부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 정보화시스템 구축건수가 늘어나고, 정보화예산·인력 비율이 높아지는 등 전자정부 구현활동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본원과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 하동군(군수 하영제)과 함양군(군수 천사령)이 각각 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전자정부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전자정부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99년부터,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전자정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 위기 극복을 위한 '2007년도 공군지휘관회의' 개최



공군(참모총장 김은기)은 지난 5월 17일 오전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김은기 참모총장을 비롯한 참모 및 예비부대 전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공군지휘관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김 총장 취임 후

첫 주재회의로 신임 참모총장의 지휘자침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총장은 회의 중 자신의 지휘의도에 대해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한 공군', '경쟁력 있는 공군'을 축으로 '새

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믿음직한 공군' 건설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 • 2007 경북 방문의 해 고향찾기 캠페인

2007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대구시와 구·군이 11월까지 '고향찾기' 캠페인을 펼친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광대훈 달서구청장 등은 올 들어 두 번째 '시장·구청장·군수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대구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경북의 고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에서는 ● 안동시의 하회마을 가족프로그램(5월 12일~18일) ● 예천군의 관광상품·농산물 특판(5월 26일~6월 1일) ● 성주군의 농촌문화·특산물 홍보(6월 2일~8일) ● 군위군의 전통마을 체험(6월 23일~29일) ● 울릉군의 사진전·자연환경 소개(6월 30일~7월 6일) ● 경주시의 홍보부스 및 이벤트 기획(7월 7일~13일) 등 15개 시·군의 주간 행사(www.gbtour.net)가 11월까지 이어진다.



## • 제25회 전국연극제 거제서 개막



제25회 전국연극제가 5월 17일 오후 6시 거제시(시장 김한겸)에서 개막했다. 오는 6월 4일까지 20일 동안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연극제에는 15개 시도 및 해외동포 극단 2개 팀 등 국내외 17개팀이 참가한다. 세계예술무대, 대학생 뮤지컬 공연, 지역민이 직접 참가하는 우리동네 예술무대, 직장인 밴드 공연,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기회와 볼거리가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전국연극제는 1983년 부산에서 처음 열린, 지역 연극인들의 화합을 기반으로 한 연극경연 축제다.

## • 부산 서구 '두도' 세계적 관광명소 조성

부산 서구청(구청장 박극제)이 송도 앞바다에 위치한 두도의 개발계획을 마련, 송도해수욕장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도는 총 6천여평에 달하는 국유지(해양수산부 소유)로 생태계 조사 결과 동백나무가 무성하고 야생 토끼가 많이 서식하는 등 천연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청 측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암남공원 배후에 조성되고 있어 송도연안종합개발계획과 두도개발계획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서부권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5회 JEJU AGORA 아이디어고라스와 韓國企業의 힘

아고라(Agora)란 고대 그리스 사회의 '토론의 광장'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시민들은 아고라를 통하여 국가대사를 결정짓곤 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가 오늘날 다시 주목되는 것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저자들이, 21세기의 기업들은 아이디어와 아고라를 합성한 아이디어고라스(Ideagoras)로 새로운 '창조경영'을 실천하여 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는 올해의 주제를 '아이디어고라스와 한국기업의 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는 지난 24년간 제주 밀레니엄포럼을 주관해온 인간개발연구원과, 2005년부터 제주 아고라(JEJU AGORA)를 출범한 현대경영학당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제휴, 제25회 JEJU AGORA 통합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그랜드 오픈합니다. 1993년 설립 이래 한국의 경제정책방향에 관하여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여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후원 하에 열리는 올 제주 아고라에는 정부의 최고위 정책 브레인인 민간 Economist를 대거 초청, 한미 FTA 파도를 뛰어넘는 '한국기업의 힘'이 각 분야별로 연구 토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기업체 경영자와 임원 여러분의 많은 참가와 지도 바랍니다.

**일 정** : 2007년 8월 1일(수)-8월 4일(토) 3박4일  
**장 소** : 제주 신라호텔  
**참가대상** : 기업체, 공공기관 CEO 및 임원 300명  
**주 관** :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  
**후 원**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참가비** : 150만원 (1가족당)  
**문 의** : TEL. 02-2203-3500(103)  
 인간개발연구원 사무국 정성숙 과장

### Program

#### 8/1(수) 제1일차

15:00	등록접수	제주신라호텔
16:30	개회인사의 말씀 아이디어고라스를 통하여 신경제 활력 되찾자	변형운 이사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6:45	오리엔테이션 대표주제 : 아이디어고라스(Ideagoras)란 무엇인가 제주 아고라 프로그램 및 운영개요	제주 AGORA 조직위원회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박종순 현대경영학당 사무처장
17:00	제주 아고라 기념강연 아이디어고라스와 한국기업의 힘	김준성 이수그룹 명예회장(섭외중)
18:00	제주 아고라 기조강연 '국가발전 전략기획본부장'에게 듣는다 주제발표 -성장과 안정과 균형'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19:30	친교와 대화의 한마당	

#### 8/2(목) 제2일차

09:00	Good Morning 특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박종구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
10:00	산자부장관 초청 대토론회 '세계화와 한국기업의 힘'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10:40	한미 FTA와 10대산업별 효과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11:20	대토론 : 한미 FTA와 제2개국 한미 FTA의 후속보완책	김세원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일용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2:10	제주아고라조직위원장배 골프대회 및 자유관광	

#### 8/3(금) 제3일차

09:00	건교부장관 초청 선진 건설교통행정의 현안과제와 비전을 말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10:10	SK텔레콤의 테크놀로지 리더십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11:10	세계일등기업-GE의 세계경영	황수 한국GE 사장
CEO 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4:00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증권투자습관	김영익 대한투자증권 부사장
15:00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부동산투자습관	이상영 부동산114 사장
16:00	공정위원장 초청 폐회기념강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7:00	종합강평 : 세계화와 한국기업의 힘	윤계섭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17:10	폐회인사 : 제주 아고라의 힘이 한국경제의 힘이 되기를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19:00	제1부: 제주 아고라의 밤 이백용 · 송지혜 부부 초청 MBTI에 의한 부부사랑 이야기 *MBTI: Myers Briggs Type Indicator	이백용 바이텍시스템 사장 송지혜 숙대 교수
20:00	제2부: 제주 아고라 열린음악회	'해오름누리'그룹 초청 공연

#### 8/4(토) 제4일차

<b>친선골프그룹</b>	<b>기타 일반가족</b>
06:00 이동: 호텔-골프장	06:00 호텔내 수영장
07:00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배 골프대회	중문해수욕장
11:30 이동: 골프장-호텔	산책 기타 휴식
12:00 호텔 체크아웃	12:00 호텔 체크아웃
12:00 개별 이동	

## Book Review

### 위키노믹스

돈 탭스코트, 앤서니 윌리엄스 지음 / 21세기북스 / 480쪽

지식 커뮤니티 시대의 새로운 경제 원리, 위키노믹스



200년 역사를 가진 브리태니커 사전의 정보량을 앞지른 사전이 있다. 바로 5년 역사의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백과사전)'이다. 이제 뛰어난 소수가 만들어 가는 이코노믹스의 시대는 가고, '집단의 지성과 지혜'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위키노믹스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이해와 협업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기업과 조직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위키피디아'와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말인 '위키노믹스'의 탄생에서부터 응용, 발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실제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웹 2.0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중요한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웹 2.0의 철학들이 기업의 R&D활동, 생산활동, 판매 광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아울러 생생한 연구와 예를 통해 세계 우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혁신의 바탕에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이해와 협업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기업과 조직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위키피디아'와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말인 '위키노믹스'의 탄생에서부터 응용, 발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실제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웹 2.0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중요한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웹 2.0의 철학들이 기업의 R&D활동, 생산활동, 판매 광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아울러 생생한 연구와 예를 통해 세계 우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혁신의 바탕에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포옹(마을을 열어주는 힘 아버지)

존 스미스 지음 / 21세기북스 / 136쪽

아버지와 마음의 포옹



마음을 열어주는 힘, 아버지를 기리는 '포옹'. 누구나 한 번쯤은 아버지의 지친 어깨를 보거나,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코끝이 찡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 아버지의 지친 어깨에 힘을 불어넣어 주거나, 어머니를 위로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안아주는 내적 포옹이다.

이 책은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해이며, 몸을 안아주는 외적 포옹이 아니라, 마음을 안아주는 내적 포옹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격려하는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줘,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음으로 포옹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아버지는 삶이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으로 외롭게 삶과 싸워갈 뿐이다. 저자는 이처럼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사랑에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의 포옹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사람에게서 구하라

구본형 지음 / 을유문화사 / 300쪽

경영전문가 구본형이 전해주는 인간경영 리더십의 지혜



IBM에서 오랫동안 변화경영 실무를 총괄하고 현재 변화경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영전문가 구본형은 '미래를 이끄는 사람은 과거를 창조적으로 활용한다'고 말

하며, 중국의 고사에서 추출한 경영론을 현대 경영리더들의 경영철학과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 이 책은 춘추전국시대,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모든 것이 경쟁했던 혼란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가장 창의적이었던 실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21세기 춘추전국시대를 평정할 리더십의 본질을 파헤친다.

저자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리더는 언제나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어제의 자신과 경쟁하는 자기경영 리더십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리더로 거듭나고, 내 사람을 얻어, 이들을 이끌고 혁신을 거듭하여, 정당한 이익으로 오래 번창하는 5단계 인간경영 리더십을 알려준다.

## Culture

### CORONATION BALL

스타마니아 & 노트르담 드 파리



감미로운 음악과 특유의 감성으로 한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 뮤지컬 중 전설의 뮤지컬 '스타마니아(Starmania)'와 최고의 뮤지컬로 평가

받은 '노트르담 드 파리(Notre-Dame de Paris)'가 서울 시립교향악단의 협연으로 'CORONATION BALL'을 개최한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번 뮤제라(뮤지컬과 오페라의 만남) 콘서트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된 프랑스 뮤지컬 '스타마니아'와 '노트르담 드 파리'의 유명 넘버들을 2시간 동안 1, 2부에 걸쳐 선보이게 된다.

- 기간 : 6월 15일(금)~17일(일) 평일 20:00 주일 18: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 02-501-1377

### 뮤지컬 대장군

TV드라마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50여개국으로 퍼

져 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대장군'이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공연은 원작에 비해 자금과 민정호, 금영의 벨로 라인인 강화됐다.

- 기간 : 6월 17일(일)까지 평일 19:30 토요일 15:00, 19:30 공휴일 14:00, 16:30 (월요일 공연 없음)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2-721-7611



# 건강한 수면을 위한 코골이의 치과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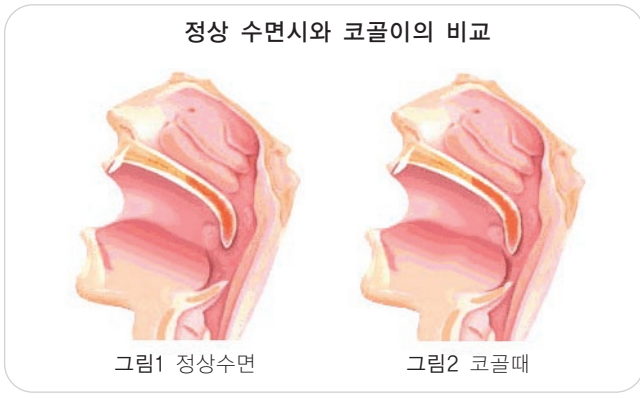
최정호 웃는내일치과 원장

침대 광고에 '수면과학'이 거론될 만큼 숙면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수면은 피로를 말끔히 회복하고 하루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면 웬지 그날의 시작부터 활기차고 즐거워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코를 심하게 골면 본인과 타인의 숙면을 방해하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한다. 연구개나 목젖의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입안에 끼우고 자는 비교적 간단한 장치를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다.

## 코는 왜 고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코로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입을 크게 벌리고 거칠게 숨을 쉬면서 잠을 잔다. 그러나 코를 심하게 곤다고 빨래집게로 코를 막는 것과 같은 일은 코골이를 방지하는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코골이 소리는 코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잠자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코를 통해서 숨을 쉰다. (그림1 정상수면) 하지만, 누워서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중에 입이 벌어지면 혀의 뒤쪽 부분이 목구멍 쪽으로 밀리면서 목젖 쪽으로 가깝게 된다. (그림2 코골이) 이렇게 공기 통로가 좁아지면 호흡하는 동안 목젖과 연구개 사이에 점막의 떨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떨림이 바로 코고는 소리다.

이렇게 코고는 소리가 나는 원인의 대부분은 인두 부위가 좁아진 것이며, 인두 부위가 좁아지는 원인은 목젖이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인두 부위의 근육과 점막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탄력이 떨어진 경우이다. 축농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이 코가 막히는 경우에도 코를 고는 현상이 나타난다.

## 수면 무호흡증이란?

코골이에 의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면 무호흡증이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코를 계속 골다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호흡이 딱 멈추게 되고, 잠시 후 숨을 크게 몰아 쉰 후 다시 호흡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폐가 신선한 공기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지한 뇌가 우리 몸을 깨우고 근육을 수축시켜 공기 통로를 다시 열어주게 된다. 이 때 환자는 숨을 크게 한번 몰아 쉰 다음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매일 밤 되풀이되면 낮 동안 심한 졸림증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종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장기간 이런 이상이 계속될 경우 심장이나 폐에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혈압, 심장 마비, 발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 코골이의 자가진단

1. 주위에서 코를 곤다고 말한다.  
예( ) 아니오( )
2. 내 코고는 소리 때문에 옆 사람이 잠을 편히 잘 수 없다.  
예( ) 아니오( )
3. 코고는 소리가 옆방에서도 들릴 정도다.  
예( ) 아니오( )
4. 코고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예( ) 아니오( )
5. 반듯이 누워서 잘 때만 코를 곤다.  
예( ) 아니오( )
6. 코를 고는 도중에 숨을 멈춘다고 주위에서 말한다.  
예( ) 아니오( )
7. 코를 골다가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다.  
예( ) 아니오( )
8. 밤에 코를 골고 낮에 자꾸 졸리는 경우가 많다.  
예( ) 아니오( )
9. 밤에 코를 골고 고혈압이 있다  
예( ) 아니오( )

1, 2, 3, 4번 중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는 코골이가 자신의 개인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5번에 예라고 답한 경우는 특정한 자세에 의한 코골이로 봐야 하며, 이 경우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방법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4, 6, 7, 8, 9번에 예라고 답한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를 고는 가장 큰 이유는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중에 혀의 뒤쪽 부분이 목구멍 쪽으로 밀리면서 목젓과 연구개 사이에 점막의 떨림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코고는 소리로 들린다.”



### 코골이의 자가치료법

중증이 아닌 단순 코골이는 간단한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코골이 환자를 위한 자가치료법을 소개한다.

- (1) 술·담배를 끊는 것이 우선이다. 담배 연기는 공기 통로를 자극해 조직을 붓게 만들고, 술을 마시면 근육이 이완돼 코골이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2)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다.
- (3) 근육의 탄력을 늘리고, 체중 감소를 위해 적절한 다이어트와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 (4)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 (5)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한다.
- (6) 야간에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혹은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삼가 한다.
- (7) 똑바로 눕지 말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다.
- (8) 높은 베개를 피한다.
- (9) 코를 골지 않는 사람을 먼저 재운다.

### 코골이의 치료

자가치료법으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1) 수술을 이용한 방법

수술을 통한 코골이 치료 대부분은 인후부의 구조물들을 조이거나 제거하여 기도를 넓힐 목적으로 행해진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술 형태는 목젓, 연구개의 일부와 편도선을 인후부로부터 제거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수술 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입원해야 한다. 또 다른 수술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목젓 전체와 입천장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국소마취로도 가능하며, 몇 주 간격을 두고서 1회 이상 수술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 (2) 호흡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수면 중에 연속적으로 기도를 통해 강제로 공기를 밀어 넣는 방법(CPAP, 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이다. 이 방법은 효과 면에서 가장 탁월하지만,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각자 마련해야 한다. 또 수면 중 마스크를 입과 코에 대고 있어야 하므로 사용하는 사람은 심한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

#### (3) 취침 시에 착용하는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치료




그림3

장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 나누어 혀만을 전방으로 당겨주는 장치, 아래 턱 전체를 전방으로 내밀어 주는 장치, 목젓 부분을 들어 올려주는 장치 등이다. 이들 모두 충분한 공기 통로를 확보해 주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 여러 부속 장치들을 추가한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다. 효과 면에서도 호흡장치(강제로 공기를 기도로 밀어 넣는 장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구강 내 장치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체중감량이나 수면자세 교정 등의 습관교정으로 치료하고자 했으나 그 효과가 없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습관교정 요법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호흡장치 사용을 거부하는 환자나 수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취침 시에만 착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장치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코골이는 자기 스스로는 그 심각성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코를 곤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적혀있는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자신이 건강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한 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길 권한다.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 가족들에게 보다 상쾌한 아침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 최정호 원장

서울대 치과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치과병원 교정과 레지던트와 美 워싱턴대 교정과 미니 레지던트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대에서 치과교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교정사협회(AAO) 멤버, 대한치과교정학회 인정의, 국제교정의사연맹 회원이다. 현재 웃는내일치과 공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치과대학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질문의 힘, 변화와 성장의 초인종

**초** 근 앞서가는 조직들이 멘토링과 코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일이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관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조직의 리더를 관리자라고 칭했다. 이제부터 리더는 과거의 경험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대신 개개인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멘토 코치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다.

자기 내면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일 때만 자발적이 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조직이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리더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다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리더가 호의를 가지고 가슴과 마음으로 사람과 교류하며 경청해 주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열어줄 때, 구성원들은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여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며 보다 창조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스스로 공헌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경험이 존중받고 있

다고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즐겁게 일에 몰입하여 성과를 높여 가는 것이다. 결국 매스 매니지먼트에서 1대1 맞춤 서비스로의 전환인 것이다.

코칭은 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자녀교육 등 모든 대인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철학이자 필수적인 스킬이다.

한국의 부모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 "오늘 시험 몇 점 맞았니?" 라고 한다. 한편 유태인 엄마들은 "너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는다고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에서 얻게 될 혜택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밖으로 향해 있던 의식이 갑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던 것들을 깊이 통찰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목표에 대해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사명을 찾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KHORI**

## 실제로 체험해 보십시오.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스스로 셀프 코치가 되어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LMI는 심도깊은 질문을 통해 변화와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돕는  
검증된 셀프 코칭 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 성공하는 리더의 EPL 코칭 1기 수료식

지난 1월 25일 한경아카데미에서 KICK OFF MEETING을 가졌던 LMI의 EPL코칭 과정 1기가 드디어 5월 17일(목) 오후 7시 수료식을 가졌다. EPL코칭 과정 1기 FT(Facilitator)를 맡았던 안효열 LMI마스터코치, 김대곤 한경아카데미 원장, 송향섭 LMI 수석 FT가 자리를 함께 해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16주 동안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에 참가자들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변화였다고 말하는 뜻깊고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목표를 세우고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EPL 코칭 1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77기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LMI 본사(개포동) 교육장에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과정 77기가 송향섭 LMI 수석 FT의 진행으로 교육중이다.

####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 한국엘엠아이 라이선스

#### ■ Big Dream & Success 모임안내

##### • LMI EPL 과정 KICK OFF MEETING

5월 25일(금)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BIG DREAM & SUCCESS 안국 교육장에서 공한수 원장의 지도로 EPL과정 킷오프 미팅이 있었다.

##### • 제 44차 LMI 수료자 모임 안내

6월 11일(월) 오후 6시 30분부터 Big Dream & Success 안국교육장에서 '서양미술의 흐름과 미술문화'를 주제로 조동화 화백, 이영수 단국대학교 학장의 강의를 열린다. 관심 있는 개인, 회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Tel. 02-774-3230 / www.whynotyou.co.kr



한국엘엠아이(주)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5층



## 믿음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해 그 힘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지식과 정보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사람보다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을 받으며 온갖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변창하는 지식 산업, 정보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다만 천부적인 재능이나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게으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특성은 무엇일까. 70세에 이른 필자의 생애를 통한 관찰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끈기성' 즉, 중단함이 없는 '지속성'인 것 같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의지력, 장애물과 불편함에 맞서는 의지력, 외견상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성인 끈기성 즉, 지속성이다.

끈기성과 지속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천하를 정복했다고 자신했던 나폴레옹은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하듯이 그가 모든 권력을 잃고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는 쓸쓸하고 가련한 실패자로 몰락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 비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의 전기는 고백하고 있다.

유대 땅 나사렛에서 한낱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자란 예수는 그의 나이 30에 이르러 40일간의 금식과 명상의 자기수련을 거치면서 온갖 시련과 유혹을 이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 위기에서도 하늘의 뜻을 버리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마저 극복하고 '내가 나의 사명을 다했다'는 말을 남기고 비참하게 처형당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명언을 남긴 예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를 얻은 초연한 승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까지도 이긴 끈기성은 어디서 왔을까. 천지를 창조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그의 용기와 끈기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링컨이 하루는 마을을 산책하다가 경매에 붙여진 한 노예 소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다. 링컨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노예 소녀를 샀다. 새로운 주인이 된 링컨에게 소녀가 던진 첫 질문은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나를 샀습니까?"였다. "자유를 주려고 한다"라고 링컨은 대답했다. '이제는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옷을 입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자유를 알게 됐을 때 소녀는 너무나 감동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 때 링컨은 소녀에게 물었다. "자,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소녀의 말은 바르고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고 싶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옳은 일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힘을 말해주는 교훈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링컨은 경매장에서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경매금을 치르고 노예 소녀를 해방시킨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과 동시에 노예 소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링컨이 가진 신앙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흑인 노예 소녀에 대한 믿음이 마침내는 그를 노예해방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링컨을 인류역사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한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돌아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믿음과 내 자신의 현실적 가치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 속에 들어있는 인간 잠재력이 창조주와 믿음으로 연결되어 생애라는 터전에 떨어져 썩으면 새 생명의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꿈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네 착한 행위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리라'는 성서가 말한 믿음의 힘이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비전도 이러한 인간에 대한 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KHILL**



# 미국의 고민과 지성인의 처방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경제부총리

**최** 근, 나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 당시 안보보좌관이었던 부르지젠 스키(Zbigniew Brzezinski) 교수의 신저 <제2의 기회 Second Chance-Three Presidents and the Crises of American Superpower, 2007>를 읽었다. 저자는 내가 보기에는 미국 최고급의 지성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견해에는 항상 경청할만한 많은 좋은 내용이 있다.

그는 냉전이 끝난 직후인 1993년에 <Out of Control>이라는 저서를 써서 미국의 지도력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 후 14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그가 우려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상실한 리더십 회복의 제2의 기회가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다. 미국이 가지는 어려움과 부시 행정부의 '실정'에 관해서는 많은 책들이 나왔으나, 부르지젠스키와 같은 무게있는 학자의 저서는 그리 많지 않다.

소련이 붕괴한 후, 미국은 세 분의 대통령 즉, 아버지 부시(Bush I), 클린턴(Bill Clinton), 그리고 아들 부시(Bush II)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세계를 평화롭게 리드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그는 보고 있다. 그는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해, 각 분야의 업적별로 점수를 매겼는데, 종합점수는 아버지 부시가 B, 클린턴이 C, 아들 부시가 F라고 평가했다. 2006년이 되어서는 미국이 도저히 슈퍼파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외로운 나라

가 됐다고 그는 평했다.

그는 미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국제정세의 추세를 다음의 10가지로 요약했다. ①서방에 대한 이슬람세계의 적대감 증대 ②중동지역의 폭발적인 정세 ③페르샤만의 이란의 세력 증대 ④핵보유국가인 파키스탄의 정정 불안 ⑤미국에 대한 유럽의 불만(disaffection) ⑥러시아의 분노 ⑦동아시아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중국 ⑧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고립 ⑨남미의 반미감정 확산 ⑩핵무기확산 방지체제의 붕괴가 그것이다. 미국에 제2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가. 그는 있다고 보고, 유럽과의 유대관계 복원이 그 필수조건이라고 보았다.

부르지젠스키의 분석은 잘 이해되지만, 미국 최고의 지성인인 그의 이론에도 맹점은 있다고 나는 본다. 그는 안보문제 전문가답게 전통적인 '힘의 정치(Power Politics)'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미국의 기본적인 문제는 유럽과의 유대의 약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자체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가 유럽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지역의 나라들에 대해 이익을 주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에 있다.

슈퍼파워일수록 필요한 것은, 덕(德)-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지만-이 있어야 하고, 덕은 곧 득(得)을 의미하는 것(德=得)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의 맹주가 되려면 미국의 글로벌질서는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갖다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슈퍼파워에는 그러한 의미의 따뜻한 제도와 문화가 있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막강하지만, 그러한 이익을 세계에 나누어줄 경제력, 문화력이 없는 데에 슈퍼파워 미국의 문제가 있다. 21세기는 세계 모든 지역이 정치적으로 깨어 있는 세기이다. 이해심, 양보심 없는 원리주의나 일방주의에 무조건 복종할 나라는 이제는 없다. **KIM**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금융그룹은  
지금 작전회의 중



##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금융연합작전

누구나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생활  
당신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셀프디자인정기예금 + 하나변액연금보험 + 하나 ELS + 골드클럽멤버스카드



**셀프디자인정기예금** 정기예금의 안정성과 필요할 때 찾아 쓰는 편리함을 두루 갖추어 편안한 노후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하나변액연금보험** 펀드에 투자하고 거기에 고객의 성향에 따라 투자할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해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연금보험상품입니다 **하나 ELS** 전망 좋은 우량종목만을 골라 그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추가 연동 상품입니다 **골드클럽멤버스카드** 2회 동반자 국내선 무료 왕복항공권 지급, 하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세무 / 법률 / 부동산 상담 등), Golf 서비스와 각종 Family 서비스까지 두루 갖춘 귀한 당신을 위한 VIP용 맞춤형 카드입니다 \* (무) 하나변액연금보험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무) 하나변액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